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4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 21(화) 오후 2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4. 21(화)	담당부서	자동차항공과
담당과장	이민우 과장 (044-203-4320)	담 당 자	김태우 사무관 (044-203-4326)

성윤모 산업부 장관, 자동차산업 간담회 개최

- 완성차 및 부품산업 상황 점검 및 업계 건의사항 수렴 -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4월 21일(화) 14시, 자동차산업협회(서울 서초구)에서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4.21(화) 14:00~15:20, 자동차산업협회(서울 서초구)

▪ **참석** : **(산업부)** 장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항공과장
(완성차)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차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사장, 예병태 쌍용차 사장,
(1차 부품)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원석 코리아FT 회장, 문승 (주)다성 회장, 나기원 (주)신흥기공 회장, 오유인 (주)세명기업 회장
(2차 부품) 이재진 (주)에이티에스 대표, 장원석 (주)부원산업 대표, 이지우 (주)신우신 대표, 구민기 (주)세아기업 대표

○ **금번 간담회**는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자동차산업 매출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어 **업계와 정부가 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4.20일 현재, 유럽, 미국, 인도 등 세계 대부분 지역**의 **완성차공장**이 **휴업중**이며, **GM, 포드, 폭스바겐,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긴급 유동성 확보** 등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중

* 폭스바겐, BMW 등 14개 글로벌기업의 313개 공장중 242개(77.3%) 가동중지(4.16 기준)

□ **우리 완성차 판매**의 **63.1%**를 차지하는 **유럽·북미 지역 판매딜러 휴업 확산**으로 **4월부터 자동차산업 전반의 생산·판매 감소가 예상**됨

○ **4.1~4.17일 완성차 수출**은 **△45.8%**, **생산**은 **△19.2% 감소**하였으며, **완성차업체**는 수출비중이 높은 차종의 **일부 생산라인 휴업**을 실시중

* **(완성차업체 4월 휴업동향)** 현대차 울산5공장 2라인 4일, 쌍용차 평택공장 8일(4.20 기준)

【 4.1~17일간 생산·내수·수출 비교 】

구 분	'19.4.1~17	일평균	'20.4.1~17	일평균	증감율	일평균
생 산	212,275	16,329	171,535	14,295	△19.2	△12.5%
내 수	77,625	5,971	79,284	6,607	2.1	10.6%
수 출	90,009	6,924	48,800	4,067	△45.8	△41.3%

* 조업일수 : ('19.4.1~17) 13일, ('20.4.1~17) 12일

□ 아울러, **현대기아차 해외 9개국 18개 공장** 가운데 **4개국 6개 공장**이 **휴업중***이며, 미국, 인도 등 **동반진출한 170여개 협력업체 사업장**도 **정상 가동에 애로**를 겪는 상황임

* **(휴업공장, 4.17일 기준)** ▲(미국) 현대 앨라바마, 기아 조지아공장, ▲(인도) 현대 첸나이, 기아 안드라프라데시공장, ▲(남미) 현대 브라질, 기아 멕시코 공장

○ 특히, 해외공장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해외진출 부품업체**들은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국내·외 자동차기업 주요 현황 】

	국 내	해 외
완성차	▪ 업체수 : 5사 ▪ 생산액 : 97조원('18) ▪ 생산대수 : 395만대('19) ▪ 직접고용 : 15만명('19)	▪ 공장수 : 현대 7개지역 12개공장 기아 5개지역 6개공장 ▪ 현지 생산액 : 777억불('19) ▪ 생산대수 : 388만대('19)
부품	▪ 업체수 : 1차 850개, 2·3차 8천여개 ▪ 생산액 : 100조원('18) ▪ 직접고용 : 24만명('19)	▪ 업체수 : 21개 지역 172개 업체 722개 공장('19) ▪ 현지 생산액 : 30조원('19) * 추정치

□ 이에 따라, 성 장관은 **3.22일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에 이어 금번에는 **완성차, 1·2차 부품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월 **와이어링하네스 사태**에서 보듯 **자동차**는 **한 두 개의 부품기업**에서 **문제 발생 시에도 자동차 생산 전반이 타격**을 받게 된다"며,

○ "정부는 기 발표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3.24)」, 「**수출활력 제고방안**(4.8)」 등에 포함된 **P-CBO 추가 지원**(8.4조원), **중소·중견기업 특별한도 대출**(21.2조원) 등을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하여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우리 완성차기업**의 **해외 공장**이 **중국, 체코, 러시아, 터키**의 **순서로 가동을 재개**하고, **국내 공장**과 **부품공장**도 **최근 추가 확진자 없이 정상 가동중**인 점을 **높이 평가**"하고,

○ "**최근 임금협상**을 **원활히 마무리**한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자동차**의 사례와 같이 **노사가 합심**하여 **위기 극복**과 **일자리 유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음

□ 간담회에 참석한 **완성차** 및 **부품업계 대표**들은 **정부에 ❶ 신규 유동성 지원**과 **❷ 추가적인 내수 진작 정책 추진** 등을 **요청**하였음

❶ (신규 유동성 지원)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상시 지출이 필요한 임금 등의 고정비 부담**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요청

❷ (내수 진작) 현행 개소세에 더해 **취득세 감면**도 **추가적으로 시행 요청**
(개소세는 승용차만 적용, 상용차는 대상 제외)

❸ (기타) 자동차 **개소세·부가세·관세** 등 **세금납부 기한 연장**(6~9개월), **'19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110g/km)을 **'20년에도 유예 적용** 등을 요청

□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자동차산업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태우 사무관(☎ 044-203-43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입니다.

지난 3월 22일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자동차 업계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1차 협력업체 대표님들과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영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지금,
유럽·미국 등 전세계 자동차 판매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완성차 업계와 1차, 2차 부품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모여
국내외 자동차산업의 상황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세계 자동차산업은
공급과 수요 양측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4.16일 현재, 전세계 글로벌 완성차 생산공장(313개) 중
약 77%(242개)가 가동을 중지하고 있으며,
언제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폭스바겐, BMW 등 14개 글로벌기업의 313개 공장 중 242개(77.3%) 가동중지
(4.16 현재, 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연구원)

유럽과 미국 등 우리 주력 시장의
판매 영업망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GM·폭스바겐·도요타 등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긴급 유동성 확보와 구조조정 등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차종의 생산라인은
가동을 잠시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의 해외공장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부품업체 중에는 특히, 해외 동반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외 진출 공장현황 : (완성차) 현대차 7개지역 12개 공장, 기아차 5개지역 6개 공장
(부품업체) 172개 업체, 722개 공장

그러나,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은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없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 완성차기업의 해외 공장도
중국, 체코, 러시아, 터키 등
차례로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미국 등의 자동차 판매 급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내수시장은 국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와
신차 출시에 힘입어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3월 실적: (생산) 36.9만대, **6.8%↑**, (내수) 17.3만대, **10.1%↑**, (수출) 21.1만대, **1.3%↑**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서 한국 완성차기업이
가장 높은 가동비율*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장가동 비율(가동 공장수 / 전체 공장수, 4.16 현재. 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연구원) :
(1위) 현대기아 75%, (2위) 도요타 53.7%, (3위) 닛산 39.3%, (4위), VW 38.5%

이는 여기 계신 완성차 기업과 부품기업들이
철저한 방역과 근로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향후 자동차 산업 전망]

그러나,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한 대응 태세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4월부터 유럽 ·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성차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생산공장의 추가적인 휴업 또는
감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4월 완성차 국내생산이
전년대비 약 30% 감소하며,
5월 및 6월의 생산·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의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
8,500여개에 이르는 1차, 2차, 3차 부품협력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감과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고정비는 상시 지출할 수밖에 없어
무엇보다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와이어링 하네스 수급 차질 사례에서 보듯
한 두 개의 부품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생산 전반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대응방향]

그간 정부는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100조+α, 3.24일),
수출활력 제고방안(36+α, 4.8일)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서는
개소세 인하, 공공기관 차량 조기 구매 등
수출 충격을 내수로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P-CBO 추가 지원(8.4조원), 중소·중견기업 초과 한도대출(21.2조원),
무역금융 확대 등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부품기업들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65년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 1955년 최초의 국산 자동차 시발(始發) 제작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 자동차산업은 위기를 기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완성차 기업들이 새로 출시한 신차*들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 (현대) GV80, G80, 아반떼, (기아)쏘렌토 , (한국GM)트레일블레이저, (르노삼성)XM3

최근 쌍용자동차('20년), 한국GM('19년)과 르노삼성('19년)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노사관계도 안정적인 상황이므로
향후 코로나 19 사태만 진정되면
우리 자동차산업이 신속하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품 업계 · 완성차 업계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한 발 한 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자동차 업계가 주신 건의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주력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